

중국 2010년 노동시장 현황 분석과 2011년 전망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박사과정(노동법 및 노사관계))

■ 머리말

2010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 11.9%, 2분기 10.3%에서 3분기 9.6%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연초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¹⁾. 이러한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시장은 산업별·지역별 노동수급의 불균형, 대졸자 취업난 등,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정 요인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0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노동시장은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출현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음력설(春节)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농민공 부족 현상(民工荒)', 팍스콘 노동자들의 연이은 투신자살과 혼다자동차 부품제조회사의 파업 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혼다자동차 파업 성공이 침묵하고 있던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중국 전역에서 파업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각 지방정부도 일단 파업과 노동력 부족현상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앞다투어 큰 폭으로 인상

1) 지난 1월 22일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中国科学院预测科学研究中心)는 2011년 중국 경제 예측보고에서 2010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고후저의 형세를 보이며, 후반기에 점차 낮아졌지만 9.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http://news.163.com/11/0124/07/6R58LGD200014AED.html>).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노동시장은 2010년 들어 전례 없는 변화와 전환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센터(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监测中心)’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전국 직업수급 분석보고(全国职业供求分析报告)²⁾’를 중심으로 2010년 중국의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2011년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010년 노동시장 기본 현황 분석

경제회복으로 취업난 해소 및 최저임금 기준 대폭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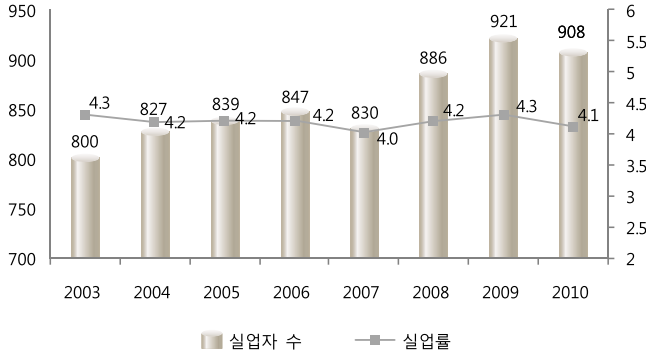
2010년 중국 경제가 전면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던 취업난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 지난 1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의 인칭지(尹成基) 대변인은 ‘2010년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 진전 발표회(2010年人力资源和社会保障工作进展发布会³⁾)’에서 전국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수는 1,168만 명으로 2010년 한 해 목표치인 900만 명의 130%를 달성했고, 면직(下岗) 실업인원 재취업자수는 547만 명으로 2010년 한 해 목표치(500만 명)의 109%, 취업곤란인원 취업자수는 165만 명으로 목표치(100만 명)의 16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도시지역 등기실업자수는 90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명 감소했고, 등기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4.1%라고 밝혔다.

2010년 2월 1일 장수성(江苏省)을 시작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동결되었던 최저임금 기준이 충칭(重庆市)을 제외한 전국 30개 성(省), 직할시 및 자치구에서 잇따라 인상되었다. 또한 산둥(山东省), 장수(江苏省), 저장(浙江省) 등 7개 지역은 최저임금 기준을 생활물가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30개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의 평균 인상률은 22.8%이고, 이중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上海市)로 1,120위안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2) 자세한 내용은 중국 취업넷 홈페이지(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에서 볼 수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홈페이지.

[그림 1] 중국 도시지역 등기실업자수 및 등기실업률 추이



* 주 : 2010년 통계는 2010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발표회
 (http://www.china.com.cn/zhibo/2011-01/25/content_21803701.htm?show=t)
 자료 : 중국통계국, 『2009년 노동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
 (http://www.molss.gov.cn/gb/zwx/2010-05/21/content_382330.htm)

지역은 베이징(北京)으로 11위안이다. 중국 정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후 5년 내에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정부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속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징 시(北京市)는 2011년 최저임금 기준을 현행 월 960위안에서 20.8% 인상된 1,16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노동수요 전년 동기대비 증가

‘중국 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센터(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监测中心)’가 전국 109개 도시지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대상으로 조사, 수집한 ‘2010년 3/4분기 도시지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시장 수급현황 분석(2010年第三度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⁴⁾’에 따르면,

4)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content/2010-10/22/content_572848.htm 참조(최종검색일 2011년 1월 25일).

〈표 1〉 2010년도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요·공급 상황

분기/현황	조사규모(도시수/총인구)	노동수요	노동공급	구인배율
1/4분기	100/1.7억 명	551만 9,321명	529만 9,216명	1.04
2/4분기	105/1.9억 명	637만 2,547명	637만 1,084명	1.00
3/4분기	109/1.9억 명	668만 2,486명	676만 6,367명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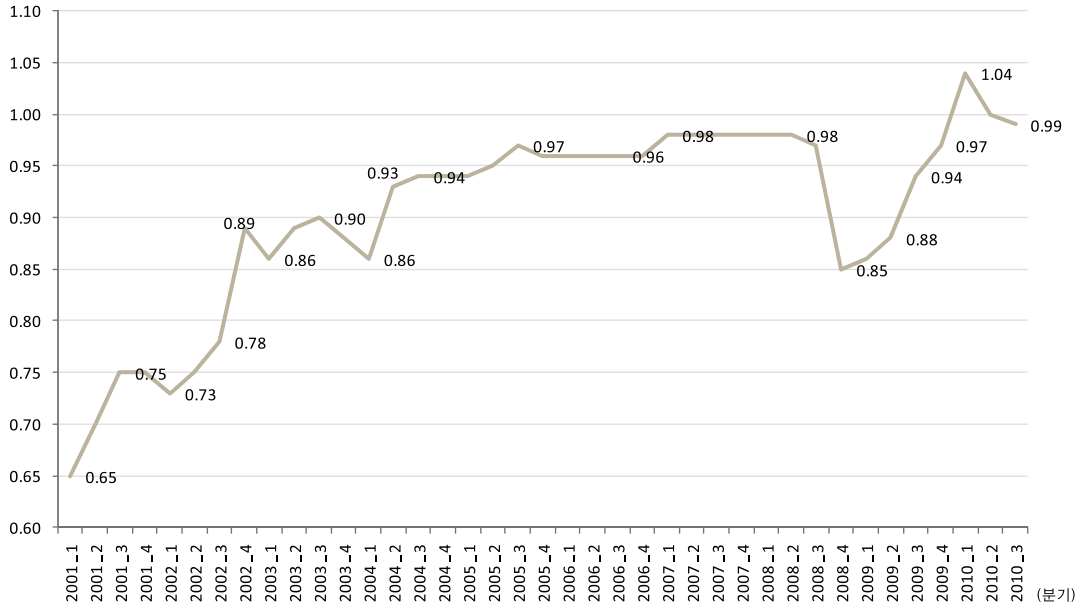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2010년 3/4분기 기업이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채용한 인원은 668만 명, 노동시장에 진입한 구직자수는 677만 명으로 나타났고, 구인배율은 0.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 높았다. 노동수급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조사대상 지역인 97개 도시에서 기업이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채용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만 명 늘어났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구직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만 명 늘어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노동수요는 각각 70만 명, 38.6만 명 및 5.4만 명 늘어났고, 노동공급은 동부와 중부 지역은 각각 48만 명, 32만 명 늘어났지만, 서부 지역은 5만 명 감소하였다. 구인배율은 동부 지역 1.01, 중부 지역 0.96, 서부 지역 0.95로 동부 연안 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4분기까지 구인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0.18, 0.12, 0.05 높게 나타났고, 2010년 1분기 중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노동시장이 더 이상 저렴한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노동가능인구의 증가는 매년 13.6%씩 감소하고 있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의 노동가능인구의 증가가 영(零)에 가까워지고, 이 이후로 마이너스(-)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점점 더 감소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⁵⁾.

5) http://www.p5w.net/news/gncj/201101/t3384601.htm(최종검색일 2011년 1월 25일)

[그림 2] 노동력시장의 구인배율 추이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2차산업의 노동수요 소폭 증가

2010년 3/4분기 노동수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산업은 1.6%, 2차산업은 40.7%, 3차산업은 57.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차산업의 노동수요는 1.1% 증가했지만, 3차산업은 0.5%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중국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부문의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산업대비 2차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⁶⁾. 업종별로 살펴보면, 82%의 노동수요가 제조업(33.9%), 도소매업(16.1%), 숙박요식업(12.8%), 주민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8.8%),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업(5.8%) 및 건축업(4.6%)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제조업과 건축

6) ‘2011년 경제형세 분석과 예측(2011年经济形势分析与预测)’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수출액은 2009년 대비 28% 증가하고, 수출 총액은 15,38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표 2〉 2009년 산업별 노동수요 현황

(단위: 명/%)

분기/현황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4분기	109,567(1.9)	2,205,476(40.0)	3,204,278(58.1)
2/4분기	120,601(1.9)	2,474,186(38.8)	3,777,760(59.3)
3/4분기	105,351(1.6)	2,720,087(40.7)	3,857,048(57.7)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업의 노동수요는 2차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83.4%, 11.2%로 두 업종이 2차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9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09년 3/4분기 동일한 조사대상 지역인 97개 도시에서 2차, 3차 산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52만 명, 64만 명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43.8만 명), 도소매업(20만 명), 숙박요식업(20만 명), 주민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5.6만 명),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업(3.4만 명) 및 건축업(4.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유제 기업이 대부분의 노동력 흡수

노동수요를 사용자별로 살펴보면, 2010년 3분기 기업이 96.5%로 전체 노동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관 및 사업단위의 노동수요 비중은 단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노동수요 중 내자(內資)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9%로 이 중 사영기업,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의 노동수요가 각각 26.2%, 24.8% 및 9.4%이며, 국유기업, 집체기업 등 공유제 기업의 노동수요는 4.3%로 비공유제 부문이 대부분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의 노동수요는 7.1%, 외자기업은 10.1%, 자영업은 10%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기업의 노동수요가 21.4% 증가했고, 이 중 내자기업의 노동수요가 18% 증가했으며, 내자기업 중 연합경영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노동수요는 각각 61.3%, 31.2% 및 28% 증가했고,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의 노동수요도 각각 31.6%, 41.5% 증가했다.

〈표 3〉 2010년 소유제별 노동수요 상황

(단위 : 명, %)

	1분기(수요/비율)	2분기(수요/비율)	3분기(수요/비율)
기업	5,342,758 (96.8)	6,174,766 (96.9)	6,446,156 (96.5)
국내자본기업	4,038,811 (75.6)	4,506,072 (73.0)	4,697,429 (72.9)
국유기업	150,764 (2.8)	161,175 (2.6)	169,883 (2.6)
집체기업	130,943 (2.5)	124,635 (2.0)	1,109,595 (1.7)
주식합작기업	182,407 (3.4)	189,250 (3.1)	174,985 (2.7)
연합경영기업	118,977 (2.2)	123,907 (2.0)	158,955 (2.5)
유한책임회사	1,418,509 (26.6)	1,485,335 (24.1)	1,600,600 (24.8)
주식유한회사	526,000 (9.8)	604,409 (9.8)	606,088 (9.4)
사영기업	1,336,011 (25.0)	1,617,515 (26.2)	1,690,246 (26.2)
기타기업	175,200 (3.3)	199,846 (3.2)	187,077 (2.9)
대만, 홍콩, 마카오투자기업	316,179 (5.9)	475,939 (7.7)	457,474 (7.1)
외상투자기업	450,230 (8.4)	555,319 (9.0)	649,090 (10.1)
개체경영	537,538 (10.1)	637,436 (10.3)	642,163 (10.0)
사업단위	28,500 (0.5)	37,688 (0.6)	44,650 (0.7)
기관	12,993 (0.2)	14,805 (0.2)	14,765 (0.2)
기타	135,070 (2.5)	145,288 (2.3)	176,915 (2.6)
전체	5,519,321 (100)	6,372,547 (100)	6,682,486 (100)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와 농민공의 비중 89.1%

대부분의 구직자는 실업자와 농민공이었다. 2010년 3/4분기의 경우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의 비중은 54.3%(이 중 신규 증가 실업청년 27.9%, 마찰적 실업자 14.5%, 기타 실업자 11.9%)이고, 농민공은 34.8%(당해시 농촌 출신자 12.2%, 타지 출신자 22.6%)로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와 농민공의 비중이 89.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3/4분기와 동일한 조사대상 지역인 100개 도시에서 2010년 3/4분기에 청년실업자가 4만 5,000명 늘어났고, 이 중 당해 연도 졸업자 중 미취업자수는

〈표 4〉 구직자별 노동공급 현황

(단위 : 명, %)

구직자/시기	2010년 1/4분기 (구직자수/비중)	2010년 2/4분기 (구직자수/비중)	2010년 3/4분기 (구직자수/비중)
신규증가 실업청년	1,268,690 (23.9)	1,611,125 (25.3)	1,886,847 (27.9)
당해 연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	565,589 (44.6)	739,961 (45.9)	901,319 (47.8)
전직과정 실업자	859,173 (16.2)	986,777 (15.5)	980,435 (14.5)
기타 실업자	684,470 (12.9)	763,150 (12.0)	803,416 (11.9)
재직자	245,880 (4.6)	410,764 (6.4)	287,335 (4.2)
면직자(하강)	216,611 (4.1)	228,666 (3.6)	236,202 (3.5)
퇴직자	29,526 (0.6)	38,714 (0.6)	40,431 (0.6)
재학생	136,294 (2.6)	163,795 (2.6)	176,211 (2.6)
당해시 농촌인원	939,007 (17.7)	823,525 (12.9)	823,982 (12.2)
타지 출신자	919,565 (17.4)	1,344,568 (21.1)	1,531,508 (22.6)
전 체	5,299,216 (100)	6,371,084 (100)	6,766,367 (100)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28만 명 늘어나 대졸자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연도별 대졸자수는 2000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630만 명에 이르렀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2010년 대졸자수는 630만 명이고, 취업재수생 규모까지 고려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정부는 700만 명의 대졸자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0년 경기가 회복되어 국유기업, 사영기업이 채용규모를 확대하면서 취업 형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되었지만, 700만 명이나 되는 대졸자 취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토로했다⁷⁾.

7) ‘2010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사업 진전 발표회’에서 인웨이민 부장은 2010년 12월 말 현재 당해 연도 대졸자 취업률은 90.7%이고, 약 60여 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2011년 대졸자 수는 660만 명이라고 밝혔다.

학력별로 노동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약 87%의 사업체가 구직자의 학력을 제한하였다. 고졸 학력이 전체 노동수요의 38.4%(이 중 직업학교, 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가 5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졸 이하(25.2%), 전문대졸(15.8%), 대졸 이상(8%)이 그 뒤를 이었다. 구직자의 학력은 고졸이 39.8%(이 중 직업학교, 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가 57.6%)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27%), 전문대졸(20.3%), 대졸 이상(12.9%) 순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율은 중졸 이하가 1.05, 고졸 1.08, 전문대졸 0.89, 대졸 0.73, 대학원졸 0.67로 고학력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중국 노동시장의 평가 및 2011년 전망

2010년 중국 노동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농민공 부족현상(民工荒)’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안의 공업지대, 즉 주강 삼각주(珠江三角洲), 장강 삼각주(长江三角洲) 지역뿐만 아니라 잉여 노동력이 풍부한 산둥성(山东省)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로 생산공정이 전문화되면서 제대로 된 기술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공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2010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취업 형세는 구인난과 취업난이 병존하는 상태를 보였다.

2010년 중국 노동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신세대 농민공이 중국 노동시장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⁸⁾. 신세대 농민공은 부모세대인 ‘1세대 농민공’ 과 비교하면 가치관, 인생관 및 선호하는 일자리 등에 차이가 있으며, ‘3高 1低’의 특징, 즉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기대치가 크며, 물질적·정신적으로 풍부를 추구하지만 작업 인내력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0년 중국의 노동시장은 취업난 해소, 임금인상, 사회보장의 확대 및 노동분쟁 발생건수 감소⁹⁾ 등 비교적 양호한

8) 중국 통계국의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에 따르면, 2009년 전체 농민공 수는 2억 3,0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고향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은 1억 5,000만 명 정도이며, 1980년 이후 출생한 16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세대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 수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9) ‘2010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사업 진전 발표회’에서 인웨이민 부장은 2010년 전국 각급 노동 분쟁중재위원회에 수리된 노동분쟁건수는 60만 1,000건으로 지난해 68만 4,000건보다 12.2%

것으로 평가되지만, 파업 발생건수가 급증한 모순적인 현상이 출현했다¹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 노동관계학원 치아오찌엔 교수는 “중국 산업노동자의 주체가 된 신세대 농민공의 의식 변화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세대 농민공이 권리의식, 평등의식, 특히 단결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법률로 보장된 최저노동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 성과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한 몫과 인간다운 노동환경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자주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불만을 적극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¹¹⁾.

2011년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중국 정부는 ‘취업우선’ 정책을 12차 5개년 계획의 취업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일자리 안정과 창출에 역점을 두며, 취업촉진을 경제 사회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이다.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 양이웅 소장은 ‘2011년 중국 경제 형세분석과 예측(2011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에서 2011년 중국 노동시장은 국내외적 환경이 개선되면서 취업난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특히 지난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실시했던 각종 취업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면서 2011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11년 중국의 노동시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현상은 2011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도 대졸자

줄어들었고, 관련 노동자 수도 81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6% 감소되었으며, 이 중 집단노동 분쟁건수는 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줄어들었고, 관련 노동자수는 21만 2,000명으로 8만 8,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10) 2010년 4~6월까지 중국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파업사건만 30건 이상이었다. 한 소식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11~50인 이하의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은 4,000건 이상 발생했고, 50인 이상의 집단적 노동분쟁은 216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乔健, '2010年中国职工状况', 『2011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12).

11) 乔健, '2010年中国职工状况', 『2011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12.

수는 660만 명,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중·고등학교 졸업자수는 600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여기에다 대규모의 면직(下岗)실업자, 퇴역군인 등까지 포함하면 2011년 한 해 동안 일자리가 필요한 인원은 2,4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 절반에 해당하는 1,200만 개 정도이다. 또한 높아지는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와 내수 부족은 중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일자리창출 능력의 감소로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농민공, 면직실업자 등 취업곤란계층의 취업난은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¹²⁾.

■ 맺음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 경제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0년 중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정 요인에 직면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다양한 위기극복 노력에 힘입어 2009년보다 취업자수는 증가했고, 실업자수는 감소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었다. 중국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2011년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2011년 중국의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 실업, 미국과 유럽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미국 다우존스사(Dow Jones & Company)가 발행하는 경제 전문지 <스마트 머니(Smart Money)>는 중국 노동자를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았다. 중국 노동자는 2009년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후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스마트 머니>는 중국 노동자를 1위

12) 杨宜勇·杨正哲, 「2010~2011年中国就业形势分析及政策建议」, 『2011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12.

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2010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등 권익 보호 투쟁에 주목했으며, 2010년 중국 노동자들이 더 많은 보수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쟁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금까지 세계 최저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온순하고 근면하게 일해 왔던 중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중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LI**